

2017년 2차 경찰 (9/2)

출제경향과 난이도

1) **난이도** : 하하-상상의 9단계로 보면 **상중**이다. 2017년 1차 시험보다는 많이 어려웠고, 경찰시험 중 최고로 어려웠던 2016년 2차 시험과 비교해도 비슷하거나 더 어려웠다. (2016년의 경우 박스 문제가 어렵고 애매하게 나왔기에 난이도가 높았지만, 이번 시험은 박스문제가 하나도 없었음을 감안하면 난이도는 2016년 2차 시험보다 높았다.) **80점 정도면 충분히 합격선이라고 할 수 있다.**

2) **출제비중** : 전근대사와 근현대사의 비중은 14:6으로 기존의 공무원 출제경향과 비슷했다.

★ 특징

① **초반에 함정문제가 상당히 많았다.** (1번 선사시대 문제 ,4번 이사부 문제, 6번 광종문제)

고득점을 하는 가장 중요한 관건은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인데, 초반에 함정문제가 상당히 있어 당황한 수험생이 많았을 것이라 생각된다.

② **개수 찾는 문제(일명 박스문제)가 출제되지 않았다.**(2017년 1차 시험, 경기북부 여경 시험에 이어 박스문제가 한 문제도 나오지 않았다. 앞으로 이 추세는 계속 되리라 생각된다.) 1차 때에 언급한 것과 같이 근현대사 비중과 개수 문제가 사라진 것을 보면 경찰시험도 앞으로는 개수문제를 지양하고, 일반 공무원 시험과 같은 출제경향을 따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대책]

★ **중요한 것을 자세히 알아야 한다.**(지엽적인 것에 집착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이 시험을 보고 더 지엽적인 것을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큰 착각을 하는 것이다. 이번 시험은 지엽적인 것에 연연하기보다는 “얼마나 기본 지식을 확실히 알고 있느냐, 사료를 통하여 당시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느냐?” 를 물어보는 시험이었다. 문제풀이를 보면 알겠지만 중요한 내용을 얼마나 잘 숙지하고 있느냐가 관건이었지 턱없이 어려운 것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는 16번 찬양회 외에는 없었다. (동티모르의 경우, 몰라도 충분히 유추해서 풀 수 있는 문제였다.)

★ **한국사 단어장 같은 요약집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 : 최근 한국사는 다른 직렬의 경우, 어렵게 나오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7년 서울시문제나 최근 국가직 문제를 보면 정말 높은 난이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7급 국가직 같은 경우, 영어가 관련시험으로 대체되면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닌가 짐작된다.) 그래서 예전처럼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주로 한국사 사건들이 단어처럼 나열된 요약집을 보는 학생들은 공부한 노력에 비하여 성적은 점점 떨어지는 추세이다. 특히 이번 시험의 경우에는, 엄청난 단어가 나열된 요약집 같은 것 달달 외우는 방식은 효과가 적었을 것이며, 중요한 것을 자세히 알고, 사료가 나타내는 상황을 잘 유추를 해야, 특히 문제푸는 요령이 있어야 고득점이 가능했을 것이다.

★ 특히 많은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 푸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해설에 문제 푸는 법은 기술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2017년 가장 어려웠던 시험으로 평가되는 8/26일 본 국가직 7급 시험 해설을 댓글로 올려놓았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다음 중 구석기 시대 유적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 ① 경기 연천 전곡리에서는 아슐리안 주먹도끼를 비롯하여 방대한 석기가 출토되었다.
- ② 부산 동삼동에서 출토된 조개 가면은 국자 가리비에 사람의 눈과 입 모양으로 구멍을 뚫은 형상으로, 집단의 공동체 의식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 ③ 충북 제천 점말동굴에서는 사람 얼굴을 새긴 동물의 뼈가 출토되었다.
- ④ 평안남도 상원 검은모루 동굴에서는 주먹도끼와 외날찍개가 출토되었다.

답 : ②

해설 ①③④는 구석기시대 유적에 대한 설명이다.

[구석기 시대 유적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 ②부산 동삼동은 신석기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지이다.

난이도 : **중 (합정문제)** : 부산동삼동이 신전기 시대 유적지라는 것은 대다수가 알았지만, 구석기를 물어보는 문제라는 것을 간과했다면 어려웠을 수 있다.)

2. 다음 역사적 사건을 발생한 순서대로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 ㉠ 우거왕이 살해되고, 왕검성이 함락되었다.
- ㉡ 위만이 고조선의 준왕을 축출하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
- ㉢ 한(漢)은 고조선 영토에 네 개의 군현을 설치하였다.
- ㉣ 예(濊)의 남려가 28만여 명의 주민을 이끌고 한(漢)에 투항하였다.
- ㉤ 고조선이 군대를 보내 요동도위 섭하를 살해하였다.

- ① ㉠→㉡→㉢→㉣→㉤
- ② ㉠→㉣→㉢→㉡→㉤
- ③ ㉠→㉢→㉣→㉡→㉤
- ④ ㉢→㉠→㉤→㉡→㉣

답 : ②

해설 ㉡ 위만이 고조선의 준왕을 축출하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BC194) →㉣ 예(濊)의 남려가 28만여 명의 주민을 이끌고 한(漢)에 투항하였다.(BC128)→㉤ 고조선이 군대를 보내 요동도위 섭하를 살해하였다.(BC111)→㉠ 우거왕이 살해되고, 왕검성이 함락되었다.(BC108)→㉢ 한(漢)은 고조선 영토에 네 개의 군현을 설치하였다.(고조선 멸망 이후)

*㉢㉣에 대한 추가설명 : 위만조선이 경제력·군사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점차 한과 대립하게 되었다. 특히 흉노와 위만조선이 연결되는 것을 경계한 한(漢)은 위만조선을 설득하려 했으나 여의치않았고, 이후 계속 한과 위만조선의 갈등이 고조되는데, 그 사례 중 하나가 위만조선에 반발한 압록강 중류지역의 예(濊)의 족장 남려가 한에 투항하자, 예의 땅(압록강 중류와 동가강 유역)에 창해군을 설치(BC 128)한 것이었다. 그리고 **섭하 살해사건이 결정적 계기**가 되어 한 무제는 고조선을 본격적으로 침공하게 된다.

난이도 : 중상(고조선과 한의 갈등을 자세히 알아야 하지만, 결정적 계기가 섭하살해사건이라는 것을 안다면 어렵지 않게 풀수 있다.)

3.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가) 고국천왕은 한미한 신분의 을파소를 국상으로 등용하여 소농민을 보호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 (나) 광개토대왕은 왜국의 침략을 받은 신라를 도와 왜병을 낙동강 유역에서 섬멸하였다.

- ① 백제의 수도 한성을 함락하고 죽령 일대에서 남양만을 연결하는 선까지 그 판도를 넓혔다.
- ② 전연의 모용황의 침입을 받아 궁궐이 불타고, 남녀 5만여 명이 포로로 잡혀갔다.
- ③ 전진을 통해 불교를 수용하고, 태학을 설립하여 귀족의 자제들에게 유학을 가르쳤다.
- ④ 위(魏)의 장수 관구검에 의해 환도성이 함락 당했다.

답 : ①

해설 (가) 고국천왕 2세기 (나)광개토대왕의 400년 사건 ②③④가 (가)(나)사이의 사건이다. ②4세기 중반 고국원왕 ③4세기 후반 고국원왕의 아들 소수림왕 ④ 3세기 동천왕

[적절하지 않은 것] ① 백제의 수도 한성을 함락하고 죽령 일대에서 남양만을 연결하는 선까지 그 판도를 넓힌 왕은 5세기 장수왕으로 광개토대왕의 아들이다.

난이도 : 하

4. 밑줄 친 ‘왕’이 재위했던 시기의 역사적 사실로 가장 적절한 것은?

“대가야가 모반하였다. 왕은 이사부로 하여금 그들을 토벌케 하고, 사다함으로 하여금 이사부를 돕게 하였다. … 이사부가 군사를 인솔하고 그 곳에 도착하니, 그들이 일시에 모두 항복하였다. 공로를 평가하는데 사다함이 으뜸이었기에 왕이 좋은 밭과 포로 2백 명을 상으로 주었다.”

- ① 이사부로 하여금 우산국(于山國)을 정벌케 하였다.
- ② 건원(建元)이라는 신라 최초의 연호를 사용하였다.
- ③ 개국(開國), 대창(大昌), 홍제(鴻濟)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
- ④ 김씨 왕위 계승 체제가 확립되었다.

답 : ③

해설 제시문의 왕은 진흥왕이다.(대가야가 모반하였다. 이사부, 사다함) “ 진흥왕 23년(562년) 9월 가야(伽倻)가 반란을 일으키자 왕이 이사부에 명하여 그들을 토벌하게 하였는데, (이때) 사다함(斯多含)이 그를 보좌하였다. ”<삼국사기>

진흥왕은 ③ 개국(開國), 대창(大昌), 홍제(鴻濟)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

[오답체크] ①지증왕 ②법흥왕 ④내물왕

<참고> 신라의 연호

신라	건원(建元)	법흥왕(法興王)	536~550
	개국(開國)	진흥왕(眞興王)	551~567
	대창(大昌)	진흥왕(眞興王)	568~571
	홍제(鴻濟)	진흥왕(眞興王)	572~583
	건복(建昌)	진평왕(眞平王)	584~633
	인평(仁平)	선덕여왕(善德女王)	634~647
	태화(太和)	진덕여왕(眞德女王)	647~650

난이도 : **중상(합정문제)**. 이사부까지만 보고 지증왕 생각하고 ①번으로 쓴 사람이 많았을 것이다. 서두르는 사람들이 가장 잘 빠지는 합정문제다.)

5. 다음 승려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원효는 다른 종파들 간의 사상적 대립을 조화시키고 분파 의식을 극복하기 위해 십문화쟁론 을 저술하였다.
- ② 의상은 화엄일승법계도 를 저술하여 화엄 사상을 확립하고, ‘일즉다 다즉일(一即多 多即一)’의 원융사상으로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대립이나 지배층 내부의 갈등을 지양하는 사회 통합 논리를 제시하였다.
- ③ 혜초는 인도와 중앙아시아 등의 성지를 순례하고 왕오천축국전 을 남겼다.
- ④ 진표는 당에서 현장으로부터 유식학을 전수받아 독자적 유식학파를 세웠다.

답 : ④

해설 ①②③이 적절한 지문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 ④ 당에서 현장으로부터 유식학을 전수받아 독자적 유식학파를 세운 것은 원측이다. 진표는 김제 금산사를 중심사찰로 하여 법상종을 개창하였다.

난이도 : 중하

6. 다음 밑줄 친 ‘왕’이 행한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만약 왕이 처음과 같이 늘 공손하고 아끼며 정사를 부지런히 하였다면, 어찌 타고난 수명이 길지 않고 겨우 향년 50으로 그쳤겠습니까. 마침내 잘하지 못했음은 진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경신년부터 을해년까지 16년간은 간사하고 흉악한 자가 다투어 나아가고 참소가 크게 일어나 군자는 용납되지 못하고 소인은 뜻을 얻었습니다. 마침내 아들이 부모를 거역하고, 노비가 주인을 고발하고, 상하가 마음이 다르고, 군신이 서로 갈렸습니다. 옛 신하와 장수들은 잇달아 죽음을 당하였고, 가까운 친척이 다 멸망을 하였습니다. - 고려사 -

- ① 백관의 공복(公服)을 제정하면서 관등에 따라 복색을 자색, 비색, 청색, 황색으로 나누었다.
- ② 대상(大相) 준홍(俊弘), 좌승(佐丞) 왕동(王同)을 모역죄로 숙청하였다.
- ③ 국가 수입의 증대를 위해 주현공거법을 실시하였다.
- ④ 노비환전법을 실시하였다.

답 : ②

해설 제시문의 왕은 광종이다. (최승로는 성종에게 시무 28조에서 자신의 정치적 식견을 피력함과 동시에 태조에서 경종에 이르는 역대 5대 국왕에 대한 평가인 '5조정적평'을 올렸는데 최승로는 여기서 4대 광종을 부정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광종은 노비안검법(956) 과거제도(958)를 실시하여 왕권을 강화한 후 960년부터 975년까지 재위기간 내내 호족을 숙청하였다. 옳은 것은 ② 대상(大相) 준홍(俊弘), 좌승(佐丞) 왕동(王同)을 모역죄로 숙청하였다.

[오답체크] ①백관의 공복 제정은 맞으나 복색은 자단비녹 4색이었다. (자비청황은 신라의 관복색이다. /참고로 백제는 자비청이었다.) ③ 현종 ④ 성종

난이도 : **중상(합정문제)**, ①자단비녹, 자비청황을 헛갈린 사람이 많았을 것이다. 요즘 복색 문제는 타직렬기출문제에서 간혹 출제되고 있다.)

7. 고려 시대 사건들을 발생한 순서대로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 | | | |
|-------------|------------|----------|
| ㉠ 강감찬의 귀주대첩 | ㉡ 강동 6주 획득 | ㉢ 강조의 정변 |
| ㉣ 별무반 창설 | ㉤ 천리장성 축조 | |

- ① ㉠→㉢→㉡→㉣→㉤
- ② ㉡→㉢→㉠→㉣→㉤
- ③ ㉢→㉡→㉣→㉤→㉠
- ④ ㉢→㉡→㉠→㉣→㉤

답 : ①

해설 ㉡ 강동 6주 획득(거란의 1차침략, 성종, 993)→ ㉢ 강조의 정변(목종,1010) → ㉠ 강감찬의 귀주대첩(거란의3차침략, 현종,1019) → ㉤ 천리장성 축조(거란3차침략 이후)→ ㉣ 별무반 창설(1107, 숙종)

난이도 : 하

8.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선왕의 맏아들이며 어머니는 제국대장공주(齊國大長公主)이다. 을해년 9월 정유일에 출생하였다. 성품이 총명하고 굳세며 결단력이 있었다. 이로운 것을 일으키고 폐단을 제거하여 시정에 그런대로 볼 만한 것이 있었으나 부자(父子) 사이는 실로 부끄러운 일이 많았다. 오랫동안 상국(上國)에 있었는데, 스스로 귀양 가는 욕을 당하였다. 왕위에 있는 지 5년이며, 수(壽)는 51세였다. - 고려사절요 -

- ① 서경에 대화궁을 짓고 그 안에 팔성당을 설치하였다.
- ② 중앙 교육 기관인 국자감을 '국학'으로 개칭하고, 양현고를 설치하였다.
- ③ 유인우로 하여금 쌍성총관부를 비롯한 철령 이북의 땅을 무력으로 수복하게 하였다.
- ④ 원나라에 만권당을 설치하여 고려의 학자들이 원의 학자들과 교류하게 하였다.

답 : ④

해설 제시문의 왕은 충선왕이다. (어머니는 제국대장공주(齊國大長公主)이다.....부자(父子) 사이는 실로 부끄러운 일이 많았다.

오랫동안 상국(上國)에 있었는데, 스스로 귀양 가는 욕을 당하였다.) 충선왕은 어머니 제국대장공주가 원의 세조 쿠빌라이의 딸이었기에 원세조의 외손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하여 세자시절에도 정치에 관여하였고, 아버지 충렬왕과 세자시절부터 많은 갈등이 있었다. 그리고 왕위에 오르자 충선왕의 개혁정치는 원의 경계심을 유발시켰고 원과 연결된 권문세족들과 원에 의하여 폐위되고 원나라에 압송되면서 실패로 끝났다.) → 충선왕은 ④ 원나라에 만권당을 설치하여 고려의 학자들이 원의 학자들과 교류하게 하였다.

[오답체크] ① 인종때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② 예종 ③공민왕

난이도 : 중

9. 김부식이 편찬한 삼국사기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로 편년체로 기술되어 있다.
- ② 유교적 입장에서 고구려 중심으로 기록하였다.
- ③ 원의 간섭을 받던 상황에서 우리 민족의 고유한 문화를 강조하였다.
- ④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기초하여 신이사관을 배격하였다.

답 : ④

해설 ④가 가장 적절하다. 삼국사기는 기전체의 정사로서, 「구삼국사」를 기본으로 하여, 유교의 도덕적 합리 사관에 입각, 오직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하여 준엄하게 기록하는 춘추필법의 형식으로 서술하였다.

[오답체크] ①삼국사기는 기전체이다. ②신라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 ③원간섭기 이전인 인종때 쓰여졌다.

난이도 : 하

10. (가)~(라) 시기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명의 첩령위 설치 통보	(가)	위화도 회군	(나)	조선 건국	(다)	1차 왕자의 난	(라)	태종 즉위
-----------------	-----	--------	-----	-------	-----	----------	-----	-------

- ① (가) - 김용이 왕을 시해할 목적으로 흥왕사에 침범했다가 최영에 의해 격퇴되었다.
- ② (나) - 이성계 일파는 폐가입진을 명목으로 우왕과 창왕을 연이어 폐위시켰다.
- ③ (다) - 명은 표문의 글귀가 불손하다는 구실로 정도전을 명으로 압송할 것을 요구했다.
- ④ (라) - 박포가 논공행상에 불만을 품고 난을 일으켰다.

답 : ①

해설 ②③④가 옳다. (④ 1차 왕자의 난 때 활약했던 박포가 논공행상에 불만을 품고 태조의 4째 아들 방간을 선동, 거병하여 일어난 싸움은 2차 왕자의 난으로 방원에게 패한 뒤 방간은 유배를 가고 박포는 죽음을 당하였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①흥왕사의 난은 공민왕 때인데, 이는 명의 첩령위 설치통보(우왕) 이전이 일이다.

난이도 : 중(흥왕사의 난만 알면 쉽게 정답을 맞출 수 있었다.)

11. 밑줄 친 ‘이 제도’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제도’가 처음 경기도에서 실시되자 토호와 방납인들은 그동안 얻었던 이익을 모두 잃게 되었다. 그래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여 왕에게 폐지할 것을 건의했으나, 백성들이 이 제도가 편리하다고 하였기 때문에 계속 실시하기로 하였다. - 열조통기 -

- ① 호(戶)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농민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었다.
- ② 운영 과정에서 유치미(留置米)는 증가하고 상납미(上納米)는 감소하였다.
- ③ 인징, 족징 등 폐단이 심각하여 이 제도가 도입되었다.
- ④ 별공(別貢)과 진상(進上)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답 : ④

해설 제시문은 대동법이다.(처음 경기도에서 실시, 방납인들은 그동안 얻었던 이익을 모두 잃게 되었다.) 대동법은 각 호에 부

과하던 토산물을 토지 1결당 미곡 12두로 대체(호구세가 토지세로 변화!)하여 땅 많은 자, 특히 양반지주 거센 반발로 경기도에서 시작하여 전국화하는데 100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광해군~숙종)→적절한 것은 ④ 별공(別貢)과 진상(進上)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오답체크] ① 대동법은 각 호에 부과하던 토산물을 토지 1결당 미곡 12두로 대체한 것으로 토지를 기준으로 바뀐 것이다. ② 대동미는 상납미와 유치미(留置米)로 나누어, 봄에 내는 상납미는 중앙의 재정에, 가을에 내는 유치미는 지방 재정에 충당되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상납미의 비율 높아지고 유치미 비율은 낮아지면서 지방관청의 재정부족이 심화되었고 이는 농민수탈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③ 공납의 폐해, 방납의 폐해가 심각하여 이 제도가 도입되었다.(인정, 족정도 일부 원인이었으나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면 ④를 써야 한다.)

난이도 : 중

12. (가)~(라)의 설명 중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월정사 팔각구층석탑은 강원도 평창에 위치해 있으며 송나라의 영향을 받았다.
 (나) 충남 예산 수덕사 대웅전은 주심포 양식을 대표하는 건축물로,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다.
 (다) 금산사 미륵전은 다포양식과 팔작지붕으로 지어졌으며, 고려 후기에 권문세족의 지원을 받아 세워진 건물이다.
 (라) 법주사 팔상전은 다층 목탑으로, 내부는 하나로 통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 ① (가), (다) ② (가), (라) ③ (나), (다) ④ (나), (라)

답 : ②

해설 (가)(라)가 옳다.

[옳지않은 것](나) 수덕사 대웅전이 주심포인 것은 맞지만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건축물은 봉정사 극락전이다.
 (다) 금산사 미륵전은 17세기 조선의 대표적 건축물이다. (인조,1635)
 [조선의 대표 건축물]

17세기	금산사 미륵전, 법주사 팔상전 , 화엄사 각황전 ← 불교의 사회적 지위향상 + 양반 지주층의 경제적 지원 * 법주사 팔상전 : 현존 최고(最古) 5층목조탑
18세기	논산 쌍계사, 부안 개암사 ← 부농과 상인의 지원
19세기	경복궁의 근정전, 경회루(왕권 강화 목적!)

난이도 : 중

13. 다음 중 밑줄 친 ‘왕’이 재위했던 시기에 편찬된 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천하의 뒤흔든 다섯 가지가 있는데 삼강이 그 수위에 있으니, 실로 삼강은 경륜의 큰 법이요 일만 가지 교화의 근본이며 원천입니다. … 선덕 신해년에 우리 왕께서 측근의 신하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 ‘간혹 훌륭한 행실과 높은 절개가 있어도, 풍속 습관에 옮겨져서 보고 듣는 자의 마음을 흥기시키지 못하는 일도 또한 많다. 내가 그 중 특별히 남달리 뛰어난 것을 뽑아서 그림과 찬을 만들어 중앙과 지방에 나누어 주고, …’ 고 하시고 … (후략)

- ① 국조오례의 ② 세종실록지리지 ③ 향약집성방 ④ 고려국사

답 : ③

해설 제시문은 책은 삼강행실도(삼강이 그 수위에 있으니,....훌륭한 행실과 높은 절개가 있어도....내가 그 중 특별히 남달리 뛰어난 것을 뽑아서 그림과 찬을 만들어)이다. 삼강행실도는 세종때 삼강(군위신강,부위부강,부위자강)의 모범이 될만한 충신·효자, 열녀 행적을 그리고 설명한 책이다. → 세종대왕때 ③ 향약집성방과 의학백과사전인 의방유취가 편찬되었다.

[오답체크] ① 성종 ② 단종(실록은 왕이 죽은 이후 편찬된 것이다.) ④태조때 정도전

난이도 : 중하

14. 조선 후기의 과학 기술에 대한 서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박연은 훈련도감에 소속되어 서양식 대포의 제조법과 조종법을 가르쳤다.
 - ② 김석문은 저서 역학도해를 통해 지전설을 주장하였다.
 - ③ 홍대용은 코페르니쿠스의 지구 자전과 공전을 설명한 지구전요를 저술하였고, 뉴턴의 만유인력설과 같은 서양의 과학을 소개한 명남루총서를 저술하기도 하였다.
 - ④ 정약용은 요하네스 테렌츠의 기기도설을 참고하여 거중기를 제작하였다.

답 : ③

해설 ①②④가 적절하다.(박연은 벨테브레가 개명한 것으로 인조때 제주도에 훈련도감에 소속되어 서양식 대포의 제조법과 조종법을 가르쳤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③ [지구전요]는 최한기가 철종때 중국 위원의 「해국도지」, 서계여의 「영환지략」 등을 바탕으로 쓴 세계 지리서이고, 명남루 총서는 그의 저작을 모아놓은 것이다.

난이도 : 중

15. 밑줄 친 ‘수호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저번에 사절선이 온 것은 오로지 수호(修好) 때문이니 우리가 선린(善隣)하는 뜻에서도 이번에는 사신을 전위(專委)하여 수신(修身)해야겠습니다. 사신의 호칭은 수신사라 하고 김기수를 특별히 차출하고 따라가는 인원은 일을 아는 자로 적당히 가려서 보내십시오. 이는 수호조약을 체결한 뒤에 처음 있는 일이니, 이번에는 특별히 당상관을 시켜 서계(書契)를 가지고 들어가게 하고, 이 뒤로는 서계를 옛날처럼 동래부에 내려 보내어 에도로 옮겨 보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 ① 최혜국 대우가 인정되어 불평등조약으로 평가받는다.
- ② 거중조정을 규정하였다.
- ③ 양국 관리는 양국 인민의 자유로운 무역 활동에 일체 간섭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 ④ 해양 측량권을 부정하였다.

답 : ③

해설 제시문의 수호조약은 강화도조약(= 조·일 수호조규, 1876)이다.(수호 때문이니, 1차 수신사 김기수...) 강화도 조약에서는 ③ 양국 관리는 양국 인민의 자유로운 무역 활동에 일체 간섭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오답체크] ① 강화도조약에 최혜국규정은 없다. 최초의 최혜국대우는 1882년에 체결된 조미수호조약이다. ② 거중조정규정이 처음 등장하는 것도 1882년에 체결된 조미수호조약이다. ④ 해양측량권을 인정하였다.

난이도 : 하

16. 다음은 어느 신문기사의 일부이다. 이 내용이 실린 시기로 가장 적절한 것은?

“북촌의 어떤 여자 중에서 군자(君子) 수 삼 인이 개명(開明)에 뜻이 있어 여학교를 실시하라는 통문(通文)이 있기에 놀랍고 신기하여 우리 논설을 삭제하고 다음에 기재한다.”

운요호사건	(가)	갑신정변	(나)	아관파천	(다)	을사조약	(라)
-------	-----	------	-----	------	-----	------	-----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답 : ③

해설 제시문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단체인 찬양회에 대한 기사이다. 찬양회는 1898년에는 서울의 북촌 부인들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우리나라 최초의 여권운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찬양회는 독립신문과 황성신문에 여성의 참정권, 직업권, 교육권을 주장하는 ‘여성 통문’을 발표하였다. → (다)에 들어가야 한다.

난이도 : **상상**

(찬양회 연도 자신이 본 요약집에 나왔다고 자랑할 필요없다. 찬양회의 연도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설령 그 연도를 외웠다 치더라도, 이 제시문에서 찬양회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던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었을까 ?)

17. 다음은 어떤 문서의 일부이다. 이 문서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1조 한· 일 양국 사이에 항구적이고 변함없는 친교를 유지하고 동양 평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대한제국 정부는 대일본제국 정부를 확고하게 믿고 시정 개선에 관한 충고를 받아들인다.
제4조 … 대일본제국 정부는 전항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군사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상황에 따라 차지하여 이용할 수 있다.

- ① 러·일 전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일본이 대한제국의 국외 중립 선언을 무시하고 체결하였다.
- ② 체결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장지연은《황성신문》에 시일야방성대곡을 게재하였다.
- ③ 대한제국의사법권을빼앗고감옥사무를일본정부에위탁하도록 하였다.
- ④ 서재필이《독립신문》을 창간하는 배경이 되었다.

답 : ①

해설

제시문은 1904년 2월에 체결된 한일 의정서이다. (시정 개선에 관한 충고를 받아들인다. … 대일본제국 정부는 전항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군사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상황에 따라 차지하여 이용할 수 있다.) 한일의정서는 일본의 군사기지 사용권 획득 등을 주 내용으로 하며 →① 러·일 전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일본이 대한제국의 국외 중립 선언을 무시하고 체결하였다.

[오답체크] ②2차 한일협약(을사조약) ③기유각서(1909) ④ 청일전쟁 이후의 상황

난이도 : 중하

18. 다음은 어느 단체의 공약 중 일부이다.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천하의 정의의 사(事)를 맹렬(猛烈)히 실행하기로 함.
2. 조선의 독립과 세계의 평등을 위하여 신명(身命)을 희생하기로 함.
3. 충의의 기백과 희생의 정신이 확고한 자라야 단원이 된다.
… (중략) …
9. 일(一)이 구(九)를 위하여 구가 일을 위하여 헌신함.
10. 단의를 배반한 자는 척살한다.

- ① 대한광복군단을 조직하여 자유시(스보보드니)로 이동하였다.
- ② 신한촌에서 대한광복군 정부를 수립하였다.
- ③ 유화현 삼원보에 경학사와 부민단을 세우고 신흥강습소를 설립하여 독립군 간부를 양성하였다.
- ④ 3.1 운동 이후 만주 길림에서 김원봉, 윤세주 등이 조직하였다.

답 : ④

해설

제시문은 의열단의 공약이다. (희생의 정신이 확고한 자라야 단원이 된다.… 단의를 배반한 자는 척살한다.) 의열단은 ④ 3.1 운동 이후 만주 길림에서 김원봉, 윤세주 등이 조직하였다.

[오답체크] ①서일의 대한독립군단을 결성하여 자유시로 이동하였다. ② 이상설,이동휘 등이 1914년 연해주에 대한광복군 정부 수립 ③ 신민회의 활동

난이도 : 중

19. 다음 내용을 공동 선언한 정부의 집권 시기에 있었던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치, 사용을 아니한다.
2.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
3. 남과 북은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 (후략) …

- ① 88 서울올림픽대회 개최 ② OECD 가입
- ③ 7 · 4 남북공동성명 발표 ④ 금모으기운동 전개

답 : ①

해설

제시문은 노태우 정부때 남북기본합의서(1991) 직후 그해 12월에 발표된 한반도비핵화선언이다.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남·북한은 서로를 국가적 실체로만 인정하고 국가로는 승인하지 않고, 서로의 체제를 인정 존중하며,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 침략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12월 31일에는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한반도 비핵(非核化)에 관한 공동 선언이 채택되었다. →① 노태우 정부때(1988~1993) 88 서울올림픽대회가 개최되었다.

[오답체크] ② OECD 가입(김영삼정부) ③ 7·4 남북공동성명 발표(박정희정부,1972) ④ 금모으기운동 전개(김영삼 정부)

★ 노태우정부 때 남북교류 : 남북한 총리회담(1990) → 남북 동시유엔가입(1991.9) → 남북기본합의서 채택(1991.12) →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1991.12)

난이도 : 상 (제시문이 '한반도 비핵화 선언'임을 찾는 센스가 필요했다.)

20. (가), (나)와 같이 통일과 관련된 내용을 합의한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1. 나라의 통일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 나가기로 하였다.

(나) 1.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 (중략) ...

9.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① (가) - 해방 이후 최초로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② (나) - 남북한이 UN에 동시 가입하였다.

③ (가) - 상록수 부대를 동티모르에 파병하였다.

④ (나) -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를 실시하였다.

답 : ④

해설

(가) 2000년 6.15 공동선언- 김대중 정부(1998~2003) (나)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노태우 정부

①②③이 옳다. ①김대중 정부 때 해방 이후 최초로 남북정상회담이 열렸으며 ② 노태우 정부때 남북한이 UN에 동시 가입하였다. ③ 김대중 정부때 상록수 부대를 동티모르에 파병하였다.(1999)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④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를 실시한 것은 김영삼 정부 때이다.

★지방자치제도의 역사: 지방자치제도는 이승만 정부때 시작은 되었으나 1961년 5.16군사정변 이후 중지되었다가 1988년 부활했다. 그러나 노태우 정부때는 지방의회 선거만 하였고, 시장 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뽑는 전면적인 지방자치제도는 김영삼 정부때부터 실시되었다.(지방자치제 전면실시)

난이도 : 상 (동티모르 파병연대를 몰라도, 김영삼때 지방자치제도 전면실시를 안다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